

광주시, U대회 재도전

박광태 시장 “2015 대회 유치해 국제도시 도약”



광주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들어 2015년 하계U대회 유치에 재도전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재도전 선언은 지난 5월 31일 2013년 U대회 개최권 결정에서 광주가 탈락한 이후 14일만이다.

박 시장은 “2013년 U대회 유치 실패 이후 일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한 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2015년 대회를 반드시 유치해 광주가 국제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촉구 성명이 발표되고 시의회도 재도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재도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경제계, 학계, 체육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무엇이 광주를 위한 길인지 살핀 결과, 2015년 U대회 유치에 재도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2015년 U대회 재도전 여부

는 이유로 종도위 상정을 연기하면서 심의가 다시 미뤄졌다. 농림부는 3개 지구 중 J프로젝트 시범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초송지구 간척지 활용방안을 놓고 현지 여론 수렴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자본 투입 대 이익산출이 2천200억 원으로 3개 지구 중 가장 큰 초송지구가 제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남도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가 초송지구(20.5㎢) 간척지와 관련, 농림부와 부처 간 양도·양수협의가 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승인신청 심의 또 1개월 보류

J프로젝트 차질 현실화

전남도의 최대 혁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J프로젝트) 승인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심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

지난 4일에 이어 2차례나 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중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J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22일 전남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기로 했던 중도위

의 J프로젝트 심의 상정이 관련 부처 의견검토를 이유로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1개월 가량 보류됐다.

중도위 심의에서는 삼호·구성·초송지구 등 J프로젝트 3개 지구의 개발을 주진 중인 3개 특수법인(SPC)이 제출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체육부가 초송지구(20.5㎢) 간척지와 관련, 농림부와 부처 간 양도·양수협의가 되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뮤지컬 **시카고**

CHICAGO

임방울국악제 오늘 개막



광주 출신 국창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제16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전야제가 명창 안숙선, 타악 그룹 얼쑤 등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대통령상을 포함, 판소리, 무용 등 6개 분야에서 총 1억여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국악제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위저링기자 jrwi@kwangju.co.kr

‘5+2 사업’ 영수회담 안건 상정 수정 안되면 대규모 장외 집회

민주당 의원들 “내년 예산심의 연계”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호남 배제 및 지역균형발전 역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청권과 연대, 대규모 장외 집회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실력행사나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국가 불균형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영남 편중 개발로 영·호남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광주·전남과 전북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호남 배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영수회담 공동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지도부에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을 이번 영수회담의 공식 안

건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강기정 대표 비서실장도 “공식 안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사업’의 수정 및 보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호남과 충청권의 광역·기초자치 단체장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대규모 월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실력 행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 심의에도 연계키로 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가 광역경제권 사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 이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신도시의 중심특구로
누리는 3·813 차례당자!
광원한민·총수원한·교재비·회로·인사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전남 ‘우먼 파워’

여성 가구주 25%

전남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 비중이 25%를 넘어서는 등 ‘우먼 파워’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통계로 본 광주·전남 여성의 삶’에 따르면 현재 전남의 여성 가구주 수는 16만7천33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66만1천821호)의 25.24%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전남의 4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여성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합계출산율 전국 최고
이주여성 비중도 1위

전남은 또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입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말 현재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으로 전국 평균(1.26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전남은 지난해 결혼한 5성장 1상 가령이 국제결혼 커플로 나타날 만큼 국제결혼의 비중이 높았다.

또 전남은 지난해 국제결혼 1천646건 가운데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한 건수가 91.6%(1천507건)에 달하는 등 이주여성의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경호기자 choice@



10. 3~10. 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3